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6 pp. 223-230,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6.223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보경, 정추영*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Effect of Empathy Ability on Multicultur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Interes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Bo-Gyeong Seo, Chu-Young Jeo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다문화 역량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공감 능력, 다문화 수용성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4개의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공감 능력, 사회적 관심,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역량 등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programs과 AMOS 18.0 program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사회적 관심,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역량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효과 (β=.26, p<.001)와 사회적 관심을 매개하는 간접효과 (β=.19, p<.001), 총효과 (β=.45, p<.001)로 나타났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은 다문화 역량에 사회적 관심을 매개하는 간접효과 (β=.31, p<.001), 다문화 수용성을 매개하는 간접효과 (β=.19, p<.001)가 유의하였다. 사회적 관심은 다문화 역량에 직접효과(β=.24, p<.001), 다문화 수용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 (β=.20, p<.001), 총효과 (β=.44, p<.001)가 유의하였으며, 다문화 수용성은 직접효과 (β=.46,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다문화 역량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은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공감 능력, 사회적 관심,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 전략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interes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y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 enrolled 209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14 October to 30 November 2022.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s were applied for data analysis using PASW 21.0 and AMOS 18.0 programs. Following are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Correlations were obtained between empathy ability, social interest,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for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showed an indirect association with mediating social interest on multicultural competence (β=.26, p<.001), mediating social interest (β=.19, p<.001), and total effect (β=.45, p<.001). Moreover, empathy ability had an indirect effect of mediating social interest on multicultural competence (β=.31, p<.001) and media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β=.19, p<.001). Social interest was found to be directly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 competence (β=.24, p<.001)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β=.46, p<.001), but was indirectly associated with media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β=.20, p<.001) and total effect (β=.44, p<.001). These findings indicat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 strategies to enhance the empathy ability, social interes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f nursing students to increase their multicultural competence.

Keywords : Empathy Ability, Multicultural Acceptance, Multicultural Competence, Nursing Students, Social Interest

*Corresponding Author : Chu-young Jeong(College of Daegu-Health)
email: jcy0902@dhc.ac.kr
Received April 10, 2023 Revised May 9, 2023
Accepted June 2, 2023 Published June 30,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취업, 결혼, 유학 등으로 다양한 문화집단들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3년 2월 기준 2,162,358명으로 총 인구 대비 4.2%에 이르고 있으며[1],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현장에서도 대상자의 문화를 고려한 건강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결혼이주 여성과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은 건강문제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2]. 따라서 간호사들은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이해하고 이들의 문화에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문화 역량이 요구된다[3]. 이에 간호교육에서도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에 적절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역량은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의 요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 신념, 개입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3]. 한편 간호 현장에서 다문화 역량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의 다양한 신념, 가치 등 문화적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4]. 따라서 다문화 역량은 예비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5].

이처럼 간호교육에서 다문화 역량 함양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6],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다문화 역량의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중재 연구[7,8]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 태도, 다문화 경험, 인권감수성, 다문화 효능감, 사회적 관심, 다문화 수용성, 사회적 책임, 공감 능력 등과의 관계 또는 영향이 보고되었다[9-15].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문화 역량 연구에서 다문화 프로그램 중재연구와 다문화 역량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연구가 대부분이다[7-15].

우선,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다문화 수용성은 서비스 실천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로[10], 다문화 집단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12]. 한편, 다문화 역량은 다문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4]. 이에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동등하게 인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16],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사회적 요인, 교육, 경험 등 간호정보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19]. 이처럼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역량의 예측요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 역량이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어[20]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역량과의 인과관계가 일관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감 능력은 타인의 감정, 상황에 부합되는 정서적 반응으로[20],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한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20,22], 다문화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16,17,21]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 활용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 및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24].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은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관심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활동으로[24],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20,24,25],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이처럼 사회적 관심 변수는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심[22], 다문화 수용성[16,19]과 다문화 역량이 높고[25],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7]. 또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역량이 높아지므로[16,25].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역량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의 매개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공감능력, 사회적 관심,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역량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공감 능력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시와 U시에 소재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 4곳에 재학 중이며 대면 수업을 위해 출석한 간호대학생을 편의추출 하였다. 표본 수 산정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할 경우 200명 이상이 적합하다는 견해[26]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부를 배포하였으나 불충분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41부를 제외한 총 20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일반적 특성, 공감 능력, 사회적 관심,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역량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각 대학 학과장의 협조를 구하고 연구자의 소속 대학에서는 보조연구자가 타 대학에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전에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서면 날인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될 것이며 자료수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설문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전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공감 능력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 상태와 내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20]으로, 본 연구에서는 Davis[27]의 대인관계 반응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Jeon[28]이 번안하여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인지 공감 15문항, 정서 공감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87이었다.

2.4.2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심은 사회공동체에서의 소속감, 타인에 대한 관심, 흥미, 사회적 협력을 표현하는 능력[29]으로, 본 연구에서는 Jeong[29]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행동 8문항, 태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93이었다.

2.4.3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10]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An 등[30]이 개발한 도구를 Kim[30]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다양성 6문항, 관계성 6문항, 보편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3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 .92이었다.

2.4.4 다문화 역량

다문화 역량은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실행능력[3]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Han[32]에

의해 개발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문화적 역량에 대한 지식 9문항, 기술 6문항, 경험 4문항, 인식 4문항, 민감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77이었고, 본 연구에서 .89이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21.0과 AMO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수는 서술적 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측정변수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정규성 검증은 표준화된 왜도와 첨도값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또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측정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공감 능력, 사회적 관심,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역량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5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공감능력 문항에서 5문항, 사회적 관심 문항에서 4문항, 다문화 수용성 문항에서 4문항, 다문화 역량 문항에서 4문항 요인 적재치가 미달되어 분석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각 변수의 Cronbach's α 분석 결과, 공감 능력 .87. 사회적 관심 .93, 다문화 수용성 .92, 다문화 역량 .89이었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연령은 '22세 이상'이 48.8%, 성별은 '여학생'이 78.0%, 종교는 '없다'가 65.8%, 전공만족도는 '보통이다'가 60.8%, 경제 상태는 '보통이다'가 48.8%,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 유무는 '무'가 56.0%, 외국인 친구 유무는 '무' 74.6%, 다문화 교과목 수강 유무는 '유'가 58.4%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ristic of Subjects (N=209)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	<20	7 (3.4)
	≥20-21	100 (47.8)
	≥22	102 (48.8)
Gender	Female	163 (78.0)
	Male	46 (22.0)
Religion	Yes	61 (29.2)
	No	148 (65.8)
Satisfaction in major	Good	48 (22.9)
	Moderate	127 (60.8)
	Poor	34 (16.3)
Economic level	High	15 (7.2)
	Medium	102 (48.8)
	Low	92 (44.0)
Communicative foreign-language	Yes	92 (44.0)
	No	117 (56.0)
foreign-national friend	Yes	53 (25.4)
	No	156 (74.6)
Participating cultural nursing education	Yes	122 (58.4)
	No	87 (41.6)

3.3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의 정규성은 왜도(skewness) 3 이하와 첨도(kurtosis)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또한 상관계수의 절대값 모두 .73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Tolerance limits)는 .64-.73로 모두 .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37-1.55로 10을 넘지 않아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분석결과, 공감 능력 3.78점/5점 만점, 사회적 관심 3.77점/5점 만점, 다문화 수용성 3.92점/5점 만점, 다문화 역량 3.94점/5점 만점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공감 능력은 사회적 관심(r=-.46, p<.001), 다문화 수용성(r=.45, p<.001), 다문화 역량(r=.46, p<.001) 간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사회적 관심은 다문화 수용성(r=.55, p<.001), 다문화 역량(r=.51, p<.001) 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역량(r=.59, p<.001) 간의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3.4 공감 능력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공감 능력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의 매개효과, 직접효과 및 총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Variables (N=209)

Variables	X1	X2	M	Y
Mean±SD	3.78±0.52	3.77±0.66	3.92±0.62	3.94±0.52
Potential range	1-5	1-5	1-5	1-5
Skewness	0.46	0.30	0.42	0.55
Kurtosis	0.49	0.66	0.23	0.80

X1=Empathy ability; X2=Social interest; M=Multicultural acceptance; Y=Multicultural competence

Table 3. Correlations statistics among Variables (N=209)

Variables	X1 r (p)	X2 r (p)	M r (p)	Y r (p)
X2	.46 (.001)	1		
M	.45 (.001)	.55 (.001)	1	
Y	.46 (.001)	.51 (.001)	.59 (.001)	1

X1=Empathy ability; X2=Social interest; M=Multicultural acceptance; Y=Multicultural competence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For Path Model (N=209)

Parameter		Direct effect β (p)	Indirect effect β (p)	Total effect β (p)
X1 →	X2	.45 (.001)		.45 (.001)
X1 →	M	.26 (.001)	.19 (.001)	.45 (.001)
X2 →	M	.43 (.001)		.43 (.001)
X1 →	Y	.13 (.051)	.31 (.001)	.31 (.001)
X2 →	Y	.24 (.001)	.20 (.001)	.44 (.007)
M →	Y	.46 (.001)		.46 (.001)

X1=Empathy ability; X2=Social interest; M=Multicultural acceptance; Y=Multicultural competence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공감 능력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효과 (β=.26, p<.001)와 사회적 관심을 매개하는 간접효과 (β=.19, p<.001)와 총효과 (β=.45, p<.001) 모두 유의하였다.

대상자의 다문화 역량과 관련된 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공감 능력은 사회적 관심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 (β=.31, p<.001)와 다문화 수용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 (β=.19, p<.001)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직접효과 (β=.13, p=.051)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심은 다문화 역량에 직접효과 (β=.24, p<.001)가 있었고, 다문화 수용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 (β=.20, p<.001)와 총효과(β=.44, p<.001)도 유의하였으며, 다문화 수용성은 직접효과(β=.46,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들 연구변수 중에서 다문화 역량에 대한 총 효과가 가장 높은 변수는 다문화 수용성, 사회적 관심, 공감 능력 순이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결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공감 능력, 사회적 관심,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역량 간의 인과관계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은 공감능력과 사회적 관심이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 간접효과와 동시에 다문화 역량에 직접효과가 유의하여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역량에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공감 능력[19,25], 사회적 관심[25], 다문화 수용성[17]등이 다문화 역량의 예측변수로 보고된 것과 일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공감 능력은 사회적 관심,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효과가, 다문화 역량에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와 Jang[20]의 연구에서 공감 능력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역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사회적 책임은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의 가치나 신념으로서 친사회적 성향을 가지며 시민사회의 필수적 요소로 사회적 관심의 주요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22,29].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적 관심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효과가, 다문화 역량에는 직 ·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yun[24]의 연구와 Bae와 Kang[25]의 연구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사회적 관심의 개념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유대감 변수가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한 Kwon[15]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한편 선행연구는 사회적 관심의 다문화 교육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조절효과[24]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25].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관심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즉, 사회적 관심은 타인을 포용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24,25],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역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잘 할 수 있어 다문화 대상자를 수용하게 되고 다문화 역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역량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수용성에 다문화 역량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Jo와 Sok[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교육경험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Kim과 Kim[1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반면 다문화 역량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고 보고한 Lee와 Jang[20]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한편 간호사의 문화적 편견은 대상자의 건강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25]. 이에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대상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은 공감능력과 사회적 관심 두 변수 모두 직접효과가 나타나 다문화 역량 함양을 위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감능력과 사회적 관심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역량에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간호대학생들은 다문화 구성원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공감능력을 높여 사회적 관심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문화권에 대한 편견이 아닌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며 이해하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총 효과를 비교해봤을 때, 다문화 수용성이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난 결과는 다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다문화를 수용함으로써 다문화 역량 함양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은 공감능력, 사회적 관심, 다문화 수용성이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들 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역량은 다양한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이므로 관련 변수에 대한 추가 고찰을 통해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고려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적 관심과 다문화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

량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관심, 다문화 수용성 등의 예측변수들이 다문화 역량에 직접효과가 확인되었고, 공감능력은 사회적 관심에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관심은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역량에 직접효과가 공감능력은 다문화 역량에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 향상을 위해 공감능력, 사회적 관심 및 다문화 수용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Justice. Statistic of a Monthly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Internet]. c2023 [cited 2023 Apr. 01], Available From: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iclMkY1NTc1NDQlMkZhcnRjbFZpZXcuZG8lM0Y%3D (accessed April 05, 2023).

[2] H. M. Kang, H. A. Seo,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multicultural understanding on multicultural attitude",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6, No.6, pp.207-228, 2016.
DOI: http://doi.org/10.18023/KJECE.2016.36.6.009

[3] T. Jowsey, "Three zones of cultural competency: surface competency, bias twilight, and the confronting midnight zone", *BMC Medical Education*, Vol.19, No.1, pp.306, 2019.
DOI: https://doi.org/10.1186/s12909-019-1746-0

[4] P. Govender, D. M, Mpanza, T. Carey, K. Jiyane, B. Andrews, S. Mashele, "Exploring culttural competence amongst OT students",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pp.8 2017.
DOI: https://doi.org/10.1155/2017/2179781

[5] Y. M. Jo, S. H. Sok,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cultural competence upon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9, No.10, pp.190-197,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10.190

[6] M. Leininger, Essential transcultural nursing care concepts, principles, examples, and policy statements. In M. Leininger, & M. R. McFarland (Eds), Transcultural nursing; concepts, theories, research and practice(3rd ed.), New York, NY: McGraw-Hill, 2002, pp.45-69.

[7] J. S. La, Y. H. Cho, "Effects of a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the multicultural attitude, cultural competency, and cultural nursing confid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4, pp.23-38, 2020.

[8] S. K. Park, S. H, Jeong, H. S. Kim, "The effect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0, No.5, pp.2695-2710, 2018.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18.20.5.2695

[9] E. M. Lee, S. H. Kim, "The structural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3, pp.115-137, 2018.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13.115

[10] S. Y. Yang, H. N. Lim, J. H. Lee,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2, pp.183-193,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183

[11] H. K. Jeon, Y. Ko,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cultural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6, No.2, pp.157-166, 2020.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20.26.2.157

[12] K. H. Kim, "Effects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empathy on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8, pp.241-247,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8.241

[13] J. Choi, J. A. Kim, " Effects of the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contact on cultural competence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Vol.14, No.1, pp.17-24, 2019.
DOI: https://doi.org/10.15715/kjhcom.2019.14.1.17

[14] Y. S. Choi, K. J. Lee, "Relation between cultural empathy,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5, No.6, pp.105-113, 2021.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1.8.15.6.105

[15] J. S. Kw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and respons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ultural competency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9, pp.257-268,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9.257

[16] S. R. Ahn, Y. G. Noh, "Effects of empathy abil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5, No.1, pp.30-36, 2020.
DOI: https://doi.org/10.21032/jhis.2020.45.1.30

[17] S. H. Park, J. H. Yu,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 on empathy in adolesc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4, pp.499-510, 2017.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7.15.4.499

[18] Y. R. Kim, O. N. Kim, "Effect of dream start center workers'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on multicultural competency: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dmissibility",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Vol.5, No.1, pp.63-83, 2022.
DOI: https://doi.org/10.46894/kaipa.2022.5.1.4

[19] S. H. Choi,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6, pp.3379-3390, 2017.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6.3379

[20] Y. M. Lee, E. S. Jang, "Effects of empathy, cultural competency, social responsibilit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12, No.1, pp.109-118, 2022.
DOI: https://doi.org/10.33502/JKSMH.12.1.109

[21] E. M. Lee, S. H. Kim, "The structural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3, pp.115-137, 2018.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13.115

[22] M.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4, No.1, pp.113-126, 198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23] M. S. Kim, D. S. Shin,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6, pp.3437-3450, 2016.
UCI: http://uci.or.kr/G704-000930.2016.18.6.008

[24] Y. K. Hyun, "Effects of multicultural indirect contact experience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interest", *Journal of bibliotherapy*, Vol.10, No.1, pp.45-65, 2018.

[25] J. H. Bae, H. J. Kang, "The effect of social interest, human rights aware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2, pp.367-378, 2022.

[26] G. S. Kim, "Analysis of structure equation model", Hannarae Publishing, 2007.

[27] M.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4, No.1, pp.113-126, 198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28] B. S. Jeon,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2003.

[29] M. Jeo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al Interest inventor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4, pp.2571-2583, 2013.
DOI: https://doi.org/10.15703/kjc.14.4.201308.2571

[30] S. S. An, M. S. Min, Y. S. Kim, K. M. Kim, M. J. Lee,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2.

[31] D. J. Kim,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voluntary work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2013.

[32] S. Y. Han,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14.

서 보 경(Bo-Gyeong Seo) [종신회원]

• 2011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만성질환

정 추 영(Chu-Young Jeong) [종신회원]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정신건강